“분열 넘어 화합” 두 까르마파 만남

1990년대 티베트 까규종단 17대 까르마파 대립
30년여 만에 첫 공동성명… 외신들도 집중 조명

박정현 객원기자

달라이라마에 이어 티베트불교의 차세대 지도자로 주목받는 까르마파. 까르마파는 티베트불교에서 까르마 까규종단의 수장을 맡는다. 그러나 전대인 16대 까르마파에 이어 환생자 문제가 일어나 종단이 분열, 종단 내에 두 명의 까르마파가 존재하게 됐다.

지난 10월 11일 프랑스 파리의 교외에서 두 까르마파가 사상 처음으로 회동,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놀라운 소식을 ‘트리 사이클’ ‘부디스트 도어’ 등의 외신들이 특별 보도했다.

1981년, 16대 까르마파 ‘랑쥥 릭빼 도르제’의 입적 후 그 환생자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대립했다. 1992년 달라이라마와 까르마 까규 내 64명의 고승들은 동부 티베트에서 태어난 ‘오갠 틴래 도르제’를 환생자로 인정한 반면, 당시 종단에서 두 번째 서열이었던 샤마르 린포체는 라사에서 태어난 ‘틴래 타얘 도르제’가 환생자라고 주장했다.

당시 중국정부 역시 오갠 틴래 도르제를 17대 까르마파로 인정, 1992년에 라사의 주석사원인 추르푸 사원에서 착좌식이 봉행됐다. 그러나 샤마르 린포체는 이에 불복해 틴래 타얘 도르제를 인도로 데려와 델리의 까르마파 불교연구소에서 착좌식을 봉행했다. 두 까르마파가 등장하면서 종단이 분열된 것이다.

두 까르마파는 이번 회동을 통해 “서로에 대해 개인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만남을 몇 년간 바라왔고, 이것이 드디어 성사됐다”며 이번 만남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닌 오랜 기간 준비를 통해 이뤄졌다고 전했다.

종단 내 의견 불일치로 인해
17대 까르마파 2명 탄생돼
오랜 시간 갈등구조 이어져
첫 회동서 ‘화합’ 거듭 강조

두 사람은 까르마 까규의 법맥이 불행히 분열돼 온 것을 어떻게 치유할지에 대해 논의를 거쳤고, 이를 위해서 “의무, 책임 그 무엇이든지 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프랑스에서 첫 회동을 가진 두 까르마파. 틴래 타얘 도르제(좌)와 오갠 틴래 도르제(우). 사진출처=트리 사이클

이들은 “미래의 까르마 까규법맥, 나아가 티베트불교계와 일체중생의 이익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공동성명에서는 “모든 까르마 까규에 속한 승가가 우리의 노력에 동참해 법맥을 강화하고 지키는 데 함께해 줄 것”을 요청하며 분열을 넘어 화합과 단결의 모습을 당부했다. 또한 목표로는 “지혜와 자비의 법맥인 우리의 법맥을 조화로이 재정립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 공동성명은 두 까르마파의 친필서명과 함께 각자의 공식 웹사이트에 티베트어, 영어, 중국어 버전으로 공표됐다. 발표 직후 성명 내용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해외 불교계에서는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 티베트불교를 가르치는 유명강사 저스틴 본 쥬도는 “까르마파들의 마음과 시방 부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모두 하나”라며 “꿈이 이루어졌다”고 기쁜 마음을 표현했다.

16대 까르마파의 개인비서였던 아치 체펠도 “수많은 장애를 넘어설 문이 열렸다. 두 분의 결합은 까르마 까규를 넘어 불법을 증장하는 데 큰 성공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번 회동을 통해 앞으로 두 까르마파가 어떠한 공동 활동을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얀마 불교단체 ‘학살 군부’ 지지

위라투, 로힝야 학살 비판하는
국제사회에 “총 들겠다” 파장

미얀마 극우불교단체 수장인 위라투(Wirathu)가 로힝야족 학살을 자행한 미얀마 군부를 지지하는 관제 시위의 선봉에 섰다. 그는 로힝야족 학살을 비판하는 국제사회에 ‘무력’ 저항하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쳐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데일리스타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극우불교단체 및 군부 지지자 수천 명은 10월 14일(현지시간) 양곤에서 대규모 시위를 열었다. 로힝야족 학살 문제를 비판하는 국제사회에 반발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미얀마 빈 라덴’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극우불교단체 ‘마 바 타(Ma Ba Tha, 민족종교보호를위한애국연합)’ 대표 위라투가 선두에 섰다. 위라투는 그동안 국내외에 로힝야족 혐오 분위기를 부추기며 반무슬림 정서 확산에 앞장서 불교원로회의의 경고 및 활동 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그런 그가 1년 만에 이례적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



미얀마 군부 지지 시위에 모습을 드러낸 극우불교단체 수장 위라투. 사진출처=데일리스타

그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미얀마에 오는 날이 내가 총을 손에 드는 날이 될 것”이라면서 군부 지도자들을 국제 법정에 세우려는 국제사회 움직임에 대해 강경한 저항 의지를 내비쳤다.

위라투는 “벵갈리(미얀마에서 로힝야족을 낮춰 부르는 말)를 로힝야족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는 미얀마의 이슬람화를 부추기는 행위”라며 “가짜 소수민족 그룹을 만들어 여러분의 나라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로힝야 학살 책임자 처벌을 막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진실의 편에 선 애국주의자”라고 치켜세웠다.

이날 시위대는 유엔 진상조사단에 의해 로힝야족 학살 책임자로 지목된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의 초상화를 들고 군부에 대한 지지 구호를 외쳤다.

한편 로힝야족 반군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은 지난해 8월 경찰초소 등을 급습했다. 이에 미얀마 군부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 로힝야족 토벌 작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로힝야족이 목숨을 잃는 한편, 70만 명 이상의 로힝야족 난민이 방글라데시로 도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국제사회는 미얀마군의 대량학살 및 반인도 범죄에 반발하며 군부 지도자를 국제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는 진상조사단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진상 규명 및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패널 구성을 결의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도 사법 관할권을 인정,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움직이는 3D 복제품으로 불상 ‘재탄생’

中 원강석굴 · 절강대학교 협동 연구로 성과 내

중국의 원강석굴연구소와 절강대학교 전문가들이 3D 프린트 기술로 제작된 고대 불상의 움직이는 복제품을 만들었다고 3D 관련 소식지 ‘3D프린팅 인더스트리’가 10월 15일 보도했다.

윈강석굴은 중국 산서성 다퉁시 서쪽 20㎞에 위치, 동서 1㎞에 걸쳐 약 40개의 굴이 있는 석굴사원이다. 이 윈강석굴은 막고굴, 룽먼석굴과 함께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삼대불 중의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돼 있다.

재현된 전체 크기의 불상은 길이 14m, 넓이 11m, 높이 9m 크기에 4메트릭톤이 조금 안 되는 무게다. 이는 3D 기술에 의해 제작된 세계에서 가장 큰 움직이는 불상으로 판명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원강석굴에서는 각각 6m, 10m, 6m 크기의 불상 3개가 풍화 위험에 처한 것으로 판명된 후 3D로 제작됐다. 이후 불상은 청도 동부 해안도시에 전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시를 위해 불상들을 이동, 설치하기 위해 무게 · 시간이 많이 들어 복제본을 이동할 수 없었다. 이에 절강대학교 연구팀이 일주일 내에 조립 가능한 3D 버전의 경량



3D 기술로 재현된 원강석굴 불상 모습. 사진출처-3D프린팅인더스트리

조각상을 제작한 것.

해당 연구팀은 이번 제작 과정에서 고정밀 3D 데이터를 수집하고 2mm 내에 오차범위를 유지했다. 이후 적층 가공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약 6개월 안에 불상의 조각들을 인쇄할 수 있었다.

원강석굴연구소 책임자 장쯔오에 따르면, 해당 불상은 전문가의 시험을 통과한 상태다. 향후 연구소의 다른 유물과 함께 전시될 계획이다. 장쯔오는 “우리는 올해 말 전에 미네랄 색소로 불상에 색을 입힐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복제품은 그것의 본래 크기 및 텍스처, 색깔까지 같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절에서 맥주를 만든다고?

日, 사찰경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다양한 이유로 신도들이 떠나는 ‘사찰이탈’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불교계. 지난 10월 9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시도로, 맥주를 제조하는 사찰이 있다고 보도했다.

아오모리현은 인구가 적고 지리적으로 외진 까닭에 사찰이탈 현상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사찰경영이 어려워진 사찰들이 속출하면서, 절에서 음악라이브나 요가교실 등의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중 오마쵸(大間町)에 소재한 고찰 소토쿠지(1625년 개산)에서 맥주를 만들어 화제다. 소토쿠지의 주지 사사키 신묘(67) 스님은 “처음에는 경내에 솟아나는 샘을 길어 생수로 상품화해 판매했다. 지역에선 예로부터 ‘장수하는 약수’로 유명했지만, 수지가 맞지 않아 포기했다”고 말했다.

신묘 스님은 여러 생각 끝에 맥주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절의 물이 좋다는 것과 서양 수도원들이 술을 빚었다는 것에서 착안했다. 2002년 주조면허를 취득, 경내에 작은 공방을 만들었다. 맥



맥주제조설비를 살피는 신묘 스님. 사진출처=니혼게이자이 신문

주탱크의 설치와 발효도 등, 모두 독자 연구를 거듭하여 맥주를 만들었다. 맥주의 이름은 ‘만 · 무사시즈쿠’. 현재 발포의 종류에 따라 6종의 맥주가 출시됐다. 지난 3일엔 신상품으로 와인도 발매했다.

신묘 스님은 “불교에서 술은 어긋난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문이 나면서 맥주를 목적으로 절에 오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맥주는 경내의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앉아서 마실 수 있는 자리도 마련돼 있다. 한 여행자는 “물이 좋아서 맥주 맛이 각별하다. 지금은 절에서만 팔지만, 일반 가게에도 들어오면 좋겠다”며 감상을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 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 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2018 살자 사랑하자 프로젝트
종교예식
제4회 스스로 떠난 이를 위한
위로법회
스스로 생을 마감한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남겨진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한편, 고통 속에 방황하는 현대인의 삶을 위로하는 법회
• 일 시 : 11월 10일 [토] 14:00~16:00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성림사 [마포구 성산동 65-3]
• 법 주 : 광용스님 [성림사 회주]
• 내 용 : 영가 위로 법문, 축원 기도, 등[燈] 공양 의식
• 참가대상 : 삶의 고통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하고 싶은 누구나
• 참 가 비 : 무료
• 접수 및 문의 : 02.737.7378
http://www.kbcd.org
※ 기도와 축원을 위해 사전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주 최 |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